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일본 대형 손보 3사, 내년 경영통합 최종 결정

□ 일본의 대형 손보사인 미츠이스미토모(三井住友)해상그룹홀딩스, IO손해보험, 닛세이도와(日生同和)손해보험의 3사는 2009년 가을 경영통합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마지막 협상 절차 중이라고 밝혀짐.

○ 대형 손보 3사가 경영통합에 성공할 경우, FY07 수입보험료 규모로 총 2조 7,000억엔 이상으로 1위의 토쿄해상의 약 2조 2000억엔, 3위의 손해보험재팬의 약 1조 3000억엔을 크게 상회하는 가장 큰 손해보험그룹 탄생을 의미함.

경영통합 손해보험 3사 비교

	미츠이스미토모해상그룹홀딩스	IO손해보험	닛세이도와
설립년도	2008년 4월	2001년 4월	2001년 4월
FY07 수입보험료규모	1조 5,410억 엔(2위)	8,715억 엔(4위)	3,182억 엔(6위)
FY07 총자산	8조 3,397억 엔	2조 9,872억 엔	1조 2,141억 엔
종업원수(08년 9월)	20,942명	9,535명	4,183명
강 점	초대형금융그룹 (미츠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)	도요타자동차가 대주주, 자동차보험강	일본생명이 대주주, 영업력강

주 : FY07 수입보험료규모 옆 ()는 일본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순위를 말함.
 자료 : 각 사 홈페이지 및 毎日新聞(2008.12.28) 참조

□ 대형 손해보험 3사는 보험시장 침체와 경영실적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영통합을 모색하게 됨.

- 일본내 경기하강으로 인한 신규 자동차 판매 부진과 주택시장 침체로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 판매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, 더욱이 금융위기의 심화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손해보험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증권화상품 등의 가격이 급락해 2008년 9월말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급격히 악화됨.
- 이번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본 손보업계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금융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.

(손해보험 3사 홈페이지, 마이니치신문 12/28, 요미우리신문 12/29, 닛산경신문 12/28)